〔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7, No. 2(1993) p.315~327

한국 복식 변천과 사회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갑오경장이후 서양패션의 수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김민자 · 임원자 · 이은영 · 구미지 · 김윤희

서울대 의류학과

Fashion Change and Social Change in Korea : A Model

-Adoption and Change of Western Fashion since Kapokyungchang(1984)-

Minja Kim · Wonja Rim · Eunyoung Rhee · Miji Koo · Yoon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Textiles

(1993. 4.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model of fashion change related to the cyclical variations suggested by Kroeber and Young and the selected social changes factors since Kapokyungchang(1894) in Korea. The sample was drawn from illustrations and photo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such as Chosunilbo, Dongailbo, and Yeowon. Documentary research and a content analysis have been don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Cyclical variations in dress were apparent for skirt length and silhouette. However, Kroeber's model and Young's model that regulary recurring cycles exist did not fit the data for 1970 to 1990 in Korea. For skirt length, the cycles appeared to be approximately five to six years for 1970 to 1990.

2. So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ended to account for more the variance in dress dimensions than political factors.

I. 머릿글

한 시대의 복식 양식의 변화는 사회 변화의 일면을 반영한다는 추론은 대부분의 복식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갑오경장(1894)[1]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의 고조와 함께 문화적, 사회적으로 크게 전환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고유의 민족복인 한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패션은 현대화 산업화의 상징으로 일상생활에 파급 수용되었으며, 한복 또한 현대화의 여러 여파로 변화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복식의 이중구조(dual system)를 초래하게 되었다.

변화는 양식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활력소이다. 그러나 양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특정한 시대, 혹은 특정한 지역 문화내에서 각기 다른 복식 양식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안정적·요

*본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 연구소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진행되었음.

인들이며 이 안정적 측면없이는 양식이라 특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양식을 다른 양식과 분리해 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양식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며 이 안정적 요인이 또한 복식 양식 변화 연구를 가능케 하는 가설이 되고 또한 안정적 요인들은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안정성과 변화성의 조화가 양식인 것이다.

많은 복식학자들은 복식 양식의 변화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으며 왜 양식은 변화하며 그 변화의 모형은 어떠한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복식 양식의 변화를 설명 가능케 하는 변화 모형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서, 복식 양식 그 자체의 내재적 자율성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입장과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식양식에 대한 변화 양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갑오경장 이후의 서양 패션의 수용과 변화에 대한 복식사적 자료 수집을 우선하며, 둘째,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제시된 복식 양식의 변화 이론과 연관지어 분석, 해석내림을 그 주안점으로 한다. 특히 복식사의 주관적, 서술적 해석방법에서 벗어나 객관적, 내용 분석적(Content Analysis) 통계방법을 절충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마이크로 필름실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독립신문(1886－1891), The Seoul Press(1907－1937), 新民報(1938－1942)등을 참조했으며 1950년대 이후는 「여원」, 「월간 멋」, 그리고 호수돈 여자고등학교의 앨범, 진명여고의 앨범, 「사진으로 보는 백년」등을 제 일차적 자료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한국 복식사에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제 이차적 자료로 참고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정면이 잘 보이며 전신의 차림새가 명확한 사진 501점을 본 연구를 위하여 추출하였다. 복식의 종류는 여성의 평상복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브닝 드레스, 바지 차림은 제외하였다. 또한 191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는 자료가 미비하여 다른 시기에 비하여 불균형을 이루므로 해석에 무리가 있어 Time Series와 외부적인 힘에 의한 변화는 1960년대 이후를 중점으로 하였다.

Ⅱ. 갑오경장 이후 서양 패션의 수용과 변화에 대한 사적 고찰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의 고조와 함께 문화적, 사상적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복제에 관해서도 인식이 높아져 개혁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관리들의 朝服, 관청에 있어서의 관리들의 私服, 일반 국민들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보다 간소한 것으로 제한하였고[2] 궁중과 점부 요인, 그리고 상류층의 남녀가 양복을 입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3][그림 1]

그 당시 분위기는 양력 사용과 단발령, 양복착용에 저항하는 것이 민족적 의분으로 생각되었다.[4] 반면 배재학당의 학생들이 머리를 깎고 제복(양복)을 입은 모습을 찬양하여 개화의 필연성과 지속성을 주장한 언론의 보도[5]에 의하면 개화를 추구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음을 엿볼 수 있다.

1896년에는 육군복장법칙이 제정되어 구군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구미식 군복으로 되었고 문관 복장의 개혁도 반포되었다.[6] 1899년에는 使臣의 복식을 외국 규모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하여 외교관의 복식이 양복화하였다.[7] 1900년에는 칙령 제 14, 15호로써 문관복장규칙을 정하고 문관의 대례복의 모든 형식을 구미식으로 바꾸어 관복이 양복화되었다.[8] 즉 대례복은 영국식 예복의 모방, 소례복은 연미복과 프록코트이며 상복은 지금의 신사복, 즉 구미인의 평복이었다. 이로써 조선왕조 500년의 구관복제는 완전히 양복화하게 되었다.

이즈음에 고종의 단발, 프록코트와 실크햇 착용, 70명의 양장을 한 일행을 거느린 순종의 지방 사찰,[9] 그리고 최초의 양장을 선보인 윤치호의 부인 윤고려의 등장 등은 복장 변화에 큰 계기가 되었다.[10][그림 2] 그런데 정부의 개혁은 소수 관리들에 국한되었고 개혁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일반인이나 부녀자들의 복식은 훨씬 이후에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후 양복화의 일반적인 경향은 남자 의복이 여자보다 빠르고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복식이 양복화됨에 따라 요구되는 양복지는 1895년 전후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1896년 독립신문의 광고란에는 JUSIK COMPANY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그것은 한국인에 의한 유일한 양복 주문의 영문 광고이다. 이 회사에서는 양

〔그림 1〕 1900년대, 純獻皇貴妃의 양장「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동아일보사, 1979

〔그림 2〕 1910년대, 양장여인「패션 50년」

〔그림 3〕 1920년대, 윤심덕, 조선일보, 1926. 8. 5

복의 제조뿐 아니라 외국의류, 구두, 가죽 제품 등을 주문받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11] 외국산 수입품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太洋木과 寒冷紗였는데 1895년 이후 한랭사는 감소하고 小川白木綾, sheeting과 방적사등의 품목이 증가하였다.[12] 이러한 수입 복지는 1894년까지 대부분이 영국제였으나 1895년에서 1904년까지는 일본제와 영국제가 절반씩, 1905년 이후는 일본제품이 영국제품을 압도하였다.[13]

양복점은 1889년 하마다 양복점이 개설된 이래 1902년에는 한흥 양복점이 최초로 한인에 의해 개설되었고[14] 김덕창이 염직공소를 설립하였다.[15]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1독립운동이 일어날 즈음까지 양복은 곧 매국의 상징처럼 되었다. 이에따라 양복화의 경향이 주춤해지고 한복착용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 이것은 복식 문제 이전에 독립운동과 구국사업 후원에 전력을 기울여 나라를 되찾자는 애국심의 발로에 연유한 것이다.

교복도 이에 영향받아 1910년 숙명은 원피스를 폐지하고 겨울에 자주빛 치마저고리, 여름에 자주치마 흰 저고리를 교복으로 하였고 자주색, 흑색, 다색, 백색을 번갈아 사용하였다.[16] 여성의 체육이 시작되어 이화의 체육 교사인 월터(Walter)가 어깨 허리치마로 고쳐 만들고 저고리를 길게하여 활동성을 도모하였다.[17] 한편 한복도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짧은 통치마로 되었고 속옷은 활동에 편리한 속셔츠, 팬티, 블루머(사루마다), 속치마를 입었다.

1906년에는 만세보에서 의제개정법 제정론을 제시하고 長衣착용 폐지를 위해 모자착용론을 편 바 있는데[18] 1910년 전후에는 장의 대신 양산을 사용하여 양산 보급률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 예로 1911년 배화학당에서 학생들의 쓰개치마 착용을 금지시키자[19] 검은 양산이나 흰수건을 대신 사용했고 이후 우산이 멋으로 사용되었다.[20]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로 1930년대말 대동아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시기 이전까지는 평상복의 양복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개화 진취적 민족감정의 이원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개화 양복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대표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그림 4〕 1930년대, 무용가 박외선의 양장, 조선일보, 1937. 8. 26

〔그림 5〕 1940년대, 몸빼차림 「패션 50년」

〔그림 6〕 1940년대, 조선일보, 1940. 5. 3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후 신구세대의 윤리적 충돌이 현저히 나타났다. 그 당시의 신문과 잡지의 광고란을 참조하면 성개방 풍조와 함께 복장의 개방이 나타난다.[21]

1920년대에는 양복이나 치마저고리에 외투(오바코우트)를 입는 신여성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구두나 경제화 또는 운동화를 신었으며 머리형은 핌프도어(히사시가미)가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당혜, 운혜를 본따서 만든 고무신이 나왔고 대륙 고무를 비롯한 고무신 공장들이 난립할 정도로 확산되어 30년대에 와서는 거의 고무신을 신었다. 양말과 구두는 1840년대 전후 선교사에 의해 들어왔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신겨졌고[22] 1906년에는 양말공장이 설립되기도 하여[23] 양말공급이 보다 용이해졌다. 1910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수직 양말기에 의한 생산이 시작되어 기업화가 이루어져 양말사용을 보편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메리야스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것은 1892년 경으로 본다.[24]

당시의 유행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귀국한 유학생들[그림 3]과 丁子屋등의 일본인 기성복 회사가 주도하여 양복을 파급시켰다. 1920년대 조선 동아일보 등이 주최한 전국 야구대회, 축구대회 등 스포츠 행사로 여러 현대식 스포츠 웨어가 등장하였다. 1926년에 히로히토가 천황으로 즉위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프록코트와 모닝코트 등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 이를 계기로 양복 정기가 호황을 누렸고 1927년에 절정에 달했다. 이렇듯 양복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양복 실습소'라고 이름붙은 양복기술자 양성기관이 생겼다.[25]

1930년대 전후 한복과 양복이 함께 입히면서 한복 부속품과 양복 부속품들도 공존되었다. 버선과 양말, 토시와 장갑, 신과 구두, 주머니와 핸드백 등이 그것이다. [그림 4]

1931년에는 문부성 특명으로 교복을 양복으로 바꾸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연판장을 찍으며 결사반대하여 1935년 신입생부터 적용되었다. 이로써 이화학당의 경우 1934년 12월 26일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의 한복 착용이 늘게되어 블라우스, 주름치마, 세일러복, 스웨터, 타이, 모자등을 맹렬히 비난하기도 하였다.[26]

이 당시 사용된 복지로는 세루(사이지), 포라, 구레빠,

〔그림 7〕 1950년대, 최은희, 여원, 1955, 11

〔그림 8〕 1960년대, 미니「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낙타, 홈스핀 등이 있었고, 안감과 심지등과 함께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27] 1920년대에 들어서 비단같이 광택나게 만든 瓦斯緞은 상류층의 의복지로 상당히 많이 소비되었다. 그 외 저마포의 대용품으로 한양저, 동양저, 신라저, 신라적 등 면사를 가공하여 저마같이 만든 류가 있었다. 면방직업계는 일본의 방직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1923년에는 경성 방직이 면직물을 처음으로 내놓게 되었다.[28] 그리고 광목, 옥양목, 인조견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1930년대 후반 대동아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물자의 부족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후퇴되고 통제 경제체제로 변하였다.[29]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의 조선 적용을 공포하였다. 또 총독부는 전국의 교원과 관공리에게 제복 착용을 지시하였다.[30] 1939년 국민징용이 실시되고 '총동원 물자사용 수용령'이 공포되어 전시체제가 되었다. 한 예로 숙명여고는 하복으로 흰 블라우스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동복은 상하 검정색으로 개정하였고 여러학교에서 바지교복을 착용하였다. 이것이 여성의 바지착용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40년대는 전투복 차림으로 슬랙스나 몸빼를 권장하여 여름은 블라우스에 몸빼, 겨울은 자켓과 몸빼를 입었다. [그림 5] 남자도 스탠드 칼라의 국방색 상의에 당꼬바지인 국민복 입기를 강요받았다. 교원들도 국방색의 모자와 양복에 각반을 찬 전투복 차림을 하였다.[31] 생필품의 배급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양복지도 배급제로 공급되었다. 복지의 질은 배급제가 계속되면서 계속 질이 떨어지고 牛毛地, 펠트地 등이 배급되기도 하였다.[32][그림 6]

1945년 해방 후 미군의 진주와 군정, 해외동포의 대저 귀국으로 복식의 서양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마카오 신사는 영국 복지로 양복을 지어 입고 첨단의 패션을 표현하는 멋쟁이로 인식된 유행어였다. 여성들의 복장은 아직 한복시대로 서구문명의 물결이 우리생활 인습에 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여학생들의 교복은 새로 제정되어 현재와 비슷한 스타일로 된 것도 이즈음이다. 복지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사아지(serge)와 미국의 원조물자,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 밀수 또는 수입되는 제품이 주종을 이루었다.[33], [34]

1947년부터 臺丸機, 兩面機, 양말기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메리야스직물의 보급이 더욱 원활해졌다.[35]

한국 여성에게 있어 패션의 보급은 수복 후인 50년대 초반이라 할 수 있다.[그림 7] 1956년 10월 노라노 여사의 패션쇼를 선두로 55년 이후 '맘보 바지', 58년 디오르의 색 드레스(sack dress)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4·19와 5·16을 겪으면서 긴장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재건복'이 등장되기도 하였으나 63년 정국의 안정과 더불어 아름다워지려는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새로운 패션이 퍼져나갔다. 60년대 초에서 67년까지 A라인, Y라인, 색 드레스가 유행되었다. 65년, 가수 윤복희가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직후 미니 스커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이르면서 미니, 맥시, 미디, 판탈롱, 핫팬츠, 청바지 등 다양한 혼합 모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니는 70년도를 최고 절정으로 무릎에서 30센티미터나 올라가고, 핫팬츠의 출현으로 시선을 자극하기도 하였다.[그림 8]

70년도를 넘어서면서 미니의 반발로 맥시라는 긴 코트와 판탈롱 등 긴 옷들이 부활하였으나 긴 맥시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인지 다시 샤넬과 미디길이를 되풀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또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히피스타일과 유니섹스모드가 유행되기도 하였다.[36], [37]

Ⅲ. 복식 양식의 변화 이론

본 절에서는 복식 양식의 변화는 그 자체의 내재적 자율성, 즉 패션의 변화는 스스로 발생하여 성장, 소멸된다는 주기성 이론과 반면, 복식 양식의 변화는 사회적 문화적 사건, 즉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양식 변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내재적 자율성

이 주기적 이론은 서양예술의 양식 변화나 복식의 양식 변화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생물학적 표현이다. 이 주기적 변화란 유기체의 일생을 통한 유아기, 성숙시, 쇠퇴기라는 순환하는 주기를 양식의 변화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문화의 반전, 성숙, 쇠퇴라는 순서와도 일치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학자 Vasari는 '양식은 인간의 몸과 같이 탄생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들어 사라진다.'[38]라고 함으로써 양식의 변화를 내재적 자율성에 의한 주기로써 간주하고 있다. 이 학설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생명'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더욱 세련되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역사 과정을 통하여 반복된다는 주기론적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미리 정하여진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법칙에 따라 양식이 변한다는 결정론적 측면에서 그 법칙의 발견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주기적 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은 빈켈만(Winckelman)[39]에 의하여 시도된 것이다. 즉 예술의 기원, 성장, 쇠퇴 등에 관하여 현존하는 고대작품을 가지고 논증함으로써 예술사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주기론은 양식 발전의 각 단계에 대한 생물학적 유추로써 가치 평가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고전의 시기나 라파엘 등을 주기의 정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써 각 주기의 정점은 그 이전 시기는 이를 향하며, 그 이후의 시기는 그 정점을 이상, 혹은 규범으로써 영감의 원천이며 모방되고 반복되어져야 하는 보다 나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편견을 낳게 된 것이다. 즉 고전주의나 고전적이란 고대의 형식 및 주제와 경합을 이룸을 뜻하여 균형과 억제라는 특징이라든가 최고의 업적이란 말과 동의어로서 양식의 이상형을 뜻한다. 반면 바로크나 바로크적이란 비고전적이며 감각적 효과와 동감이 넘치는 미술양식으로써 완성을 이룬 르네상스 미술과는 대조적으로 타락과 쇠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주기론은 특정한 시대의 양식에 따라 우월을 가리는 가치평가적인 의미로써 예술작품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의 변화에 내재적 법칙이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은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지나치게 단선적인 해석으로서 무리가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Kubler[40]는 주기적인 내재적 자율적 설명체계가 역사의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한 모형이라 믿었으나 이러한 모형이나 주기가 예술품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된 예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모형은 자연이 가장 이상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19세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자연에서는 유기적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 되풀이되지만 인간이 창조한 예술품이나 물품들은 생

물적 유기체와 다르므로 이러한 유기체적 발전, 성숙, 쇠퇴의 과정을 예술양식의 변화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그 대안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식의 연속적 변화 모형(continuous theory of change)을 제시하였다. 이 연속적 변화 모형이란 예술형태는 시간의 흐름에서 연속성을 지니며, 예술작품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연속체내에서 그 이전 것의 영향을 받으며 탄생되는 이론이다. 즉 모든 예술형태는 그 전에 만들어진 어떤 것의 변형 또는 복제품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 상태의 완전한 반복은 아니며, 예술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형태적인 변화와 그 요인 등의 관계를 밝히는 것과 연속체의 지속기간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연속체를 Kubler는 '연결된 해결(linked solution)'이라 한다.

Kubler에 의해 제시된 이 연속적 변화 모델은 1980년 Brodsky[41]에 의하여 재조명되었다. Brodsky는 Kubler가 연결된 해결에서 하나의 예술품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습(convention)과 창조(invention)라는 예술품과 실용품을 혼동시킨다고 지적하고 관습 대신에 연속성(continuity), 창조 대신에 불연속성(discontinu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양식 개념을 연속적 모형과 관련지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연결된 해결의 변형이라 설명하고 있다. 양식의 변화를 문화, 집단, 개인에 적용시키는간에 이는 과거와의 단절된 창조나 급진적인 변화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의 구조나 모형에 축적된 다양성에 근거하며 창조는 변화성있게 펼쳐지는 것이며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으로 행하였던 간에 구조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복식사 분야에서 복식 양식의 변화를 서술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이론은 이 주기성이다. 즉 한가지 복식의 양식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재현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즉 이는 유행에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법칙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변화한다는 결정론적 입장이다. 일찌기 복식의 주기성에 관하여 Kroeber(1919)[42]나 Richardson과 Kroeber(1940)[43], Young(1937)[44], Belleau(1987)[45] 등의 연구가 있다. 대체로 이들은 복식의 윤곽선이나 스커트 길이,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선에 의한 변화의 규칙성에 주목하고 있다.

Young은 1760년에서 1937년 사이의 여성 복식 양식의 변화에 있어서, 종형(bell-shape type), 버슬형(backfullness type), 관형(tubula type)의 순으로 반복되어 나타내며 각 스커트형이 재 등장하는 주기는 약 100년임을 밝힘으로써 복식 양식 변화에 규칙적인 주기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Richardson과 Kroeber(1940)는 Kroeber(1919)가 1814년에서 1919년까지 여성 이브닝 드레스에서 나타난 양식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공동 연구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측정된 내용은 총 여섯 차원으로써, 스커트 길이, 허리길이, 데콜따지 깊이, 스커트 너비, 허리너비, 데콜따지 너비로 각 측정 차원은 극대치나 극소치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며 변화하였다. 이들 한 진동의 주기는 대략 1세기로 이러한 주기는 전쟁등의 급격한 변화 요소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될 경우 규칙적으로 반복된다고 예측하였다.

Low & Low(1982)[46]는 복식 양식 변화의 내재적 자율성, 즉 주기론을 중시하나 한편 사회, 문화, 정치 등의 외부적인 힘도 복식 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Richardson과 Kroeber의 양적 데이타를 이용하여 양식적 변화의 수학적 모델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Richardson과 Kroeber의 모델에 대하여 재해석과 비평을 가하였다.

Low & Low는 확률적 통계적 모델에 있어서 결정론적이며 주기적 자율성은 부분적으로만 예측 가능하며 그 중심에는 단순화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 예측 가능한 부분을 '구조적인 부분(structural portion)'이라 하며 미래를 특정 방향으로 제한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무작위 부분(random portion)'이라 하였다. 유행의 주기성은 이 구조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모델의 예측하기 어려운 무작위적 부분은 사회 문화적 외부의 힘에 의한 양식상의 변화에 대한 증거이며 양식의 변화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외부적 힘에 의한 양식의 변화

이의 양식변화에 대한 견해는 패션 자체가 갖고 있는 변화의 속성, 즉 내재적 자율성이라기 보다는 외부적인 힘, 즉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 혹은 이념적 변화, 기술적 변화 등에 따라 복식 양식의 변화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일찌기 Nystrom(1928)[47]은 부의 확산, 소득의 증대, 번영의 정도가 패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Nu-

gent(1962)[48], Bush와 London(1965)[49], Smith(1974)[50], Robenstine과 Kelly(1981)[51], Behling(1985)[52]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와 복식 양식의 변화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mith(1974)는 양식이란 史的으로 특징적이어서 미적, 문화적 양상의 핵심적인 속성이라 정의내리면서 양식의 변화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의 관계를 19세기 남성복식에서 댄디 스타일을 만들어 낸 영국의 멋장이 George Brummell(1778－1840)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decrystallization) 시기에는 이 불안정한 사회구조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양식이 탄생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회의 구조중 남, 녀의 역할이 혼돈되는 시기나 사회 계층의 혼돈이 있을 때 복식 양식의 변화가 촉진되며 반대로 남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며 사회적 지위나 계층이 확고한 시기에는 복식이 지위 상징으로써 그 변화의 중요성이 감소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Bush와 London이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가 다양할수록 복식 양식의 변화나 패션의 변화는 가속화, 다양화의 현상을 가져온다는 추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Robenstine과 Kelly는 실증적 자료로서 복식 양식의 안정과 변화의 양상이 사회적 안정과 변화의 시기와 일치하는가를 1715년에서 1914년 사이의 프랑스의 복식을 통하여 고찰한 바 복식의 양식 변화와 사회적 변화의 양상과 꼭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Hall(1972)[53]은 1920년대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것은 1차 대전 후 차원, 즉 직물공급의 부족에 의한 경제적 측면이라 해석을 내리고 있으나, 일찍 Young(1929)은 경제공황 후 스커트 길이가 길어진 것은 심리적 위축에 의한 패션 자체의 속성으로 경제적 측면의 Hall의 견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Behling(1985)은 패션 확산에 대한 수직적인 이론을 재규명하기 위하여 1920년에서 현재까지의 패션 변화와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 각 시기마다 연령의 중앙치, 개인 소비 지출의 비율, 즉 자유 재량 수입원과 국가의 일반적 경제 여건 등과 관련지어 연구한 바 각 10년마다

〈표 1〉 6가지 의복차원에 대한 연도별 백분율(%)

의복차원 \ 년대		1910 N=3	1920 N=8	1930 N=13	1940 N=11	1950 N=34	1960 N=119	1970 N=102	1980 N=211
스커트길이	무릎위						46.09	26.04	7.50
	무릎				71.43	65.63	51.30	20.83	29.00
	장단지		100.00	100.00	28.57	34.38	1.74	45.83	60.00
	발목							4.17	3.50
	바닥	66.67					0.87	1.04	
	트레인	33.33						2.08	
허리선위치	하이						6.09	3.13	1.50
	내츄럴	1.00	25.00	100.00	100.00	100.00	91.30	95.83	79.00
	로우		75.00				2.61	1.04	18.00
	드롭인 프론트								1.50
실루엣	버슬								
	튜블러		100.00	66.67		6.25	46.96	16.67	54.00
	벨			16.67	100.00	25.00	36.52	75.00	30.50
	아우어글래스	100.00		16.67		68.75	16.52	8.33	15.50
맞음새 소매	슬리브리스					12.50	14.78	5.21	4.50
	꼭 맞는			8.33		9.38	3.48	14.58	
	약간 여유있는		100.00	66.67	42.86	78.13	76.52	53.13	41.00
	풍성한	100.00		25.00	57.14		5.22	27.08	54.50
바디맞음새	꼭 맞는			16.67	57.14	37.50	7.83	15.63	3.50
	약간 여유있는	100.00	25.00	58.33	42.86	62.50	90.43	63.54	54.00
	풍성한		75.00	25.00			1.74	20.83	42.50
스커트맞음새	꼭 맞는			8.33		15.63	5.22		3.50
	약간 여유있는	100.00	12.50	25.00		56.25	59.13	29.17	52.00
	풍성한		87.50	66.67	100.00	28.13	35.65	70.83	44.50
구조형	비구조적		100.00	41.67		12.50	17.39	44.79	61.50
	구조적	100.00		58.33	100.00	87.50	82.61	55.21	38.50

인구 연령의 중앙치는 패션 변화의 중요한 지시자이며 국가 경제가 호경기이면 패션의 변화는 가속화되는 현상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Balkwell과 Ho(1992)[4]도 타이완과 미국의 패션 변화의 연구에서 스커트의 길이의 변화에서 두나라 모두 주기성이 뚜렷하였으며 의복 차원의 변화에 있어 경제적, 인구 통계적 모델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Ⅳ. 갑오경장 이후 패션의 변화에 대한 양적 분석

Belleau(1987)의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써 실루엣과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스커트 길이, 허리선의 위치, 실루엣, 소매 맞음새, 바디스 맞음새, 스커트 맞음새 등 6가지 차원이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1. 주기성에 의한 복식 양식의 변화

복식양식의 변화의 주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0년마다 6가지 의복차원에 대한 백분율이 〈표 1〉과 같이 산출되었다. 1910년대는 길은 걸 스타일로서 트레인이나 바닥 길이였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는 장단지 길이,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좀더 짧아진 무릎선, 1960년대는 미니스커트 길이로서 무릎위선, 1970년대는 미디의 스커트 길이가 가장 많이 차지하나(45.83%) 미니나 샤넬라인의 분포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26.04%, 20.83%), 1980년대는 미디의 스커트 길이(60%)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의 결과는, Belleau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1940년대 이후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리선의 위치는 1920년대의 로우 웨이스트 라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내츄럴 웨이스트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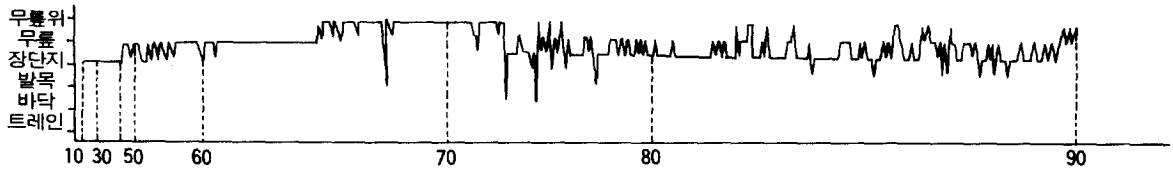
실루엣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 10년마다 빈도 수가 많은 것은 아우어 글래스에서 튜블러 실루엣, 벨 실루엣 순으로 주기적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1960년대의 튜블러(46.96%), 벨(36.52%)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가지 실루엣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Belleau의 연구에서 1950년대의 튜블러(55.0%), 벨(45.0%) 실루엣을 제외하고 대체로 한가지 실루엣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는 경향과 비슷한 것으로써 단지 시차가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가 아닌 60년대라는 점이 흥미있는 것이다.

또한 6가지 의복 차원중 가장 복식 양식의 변화를 설명가능케하는 변수는 스커트 길이, 허리선의 위치, 실루엣임을 〈표 1〉의 백분율에서 알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실루엣에서 주기적 경향이 있었다.

[그림 9]는 스커트 길이에 대한 주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Time Series분석을 행한 것이다. 그 결과 10년에서부터 60년대에 걸쳐 스커트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었으며, 60년대 후반기[그림 10]은 무릎위의 미니스커트로서 가장 짧아졌으며 70년대는 미니에서 맥시까지 스커트 길이에서 가장 심한 진폭의 변화를 보였으며[그림 11] 80년대 전반기는 비교적 미디를 유지하였으나 후반기는 미니에서 미디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2] 이의 결과는 60년대의 샤넬라인에서 미니, 70년대의 미니에서 미디, 80년대의 미디에서 미니의 주기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의 결과는 타이완과 미국의 복식의 차원을 비교한 Balkwell과 Ho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스커트 길이의 변화 주기를 100년으로 예측한 Kroeber의 이론은 본 연구의 자료로는 지지하기 어려웠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 미니에서 미디의 스커트 길이 변화는 훨씬 가속화 현상을 보여, 우리나라에서는 5-6년의 진폭을 보이고 있다.

2. 외부적 힘에 의한 복식 양식의 변화

Smith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어 널리 퍼져있는 문화적 양상과 실제의 사회적 구조망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비구체적이고 불안정한 사회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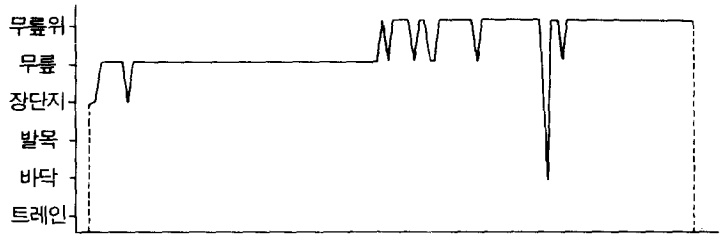


〔그림 9〕 1900년에서 1989년까지 스커트길이에 대한 Tim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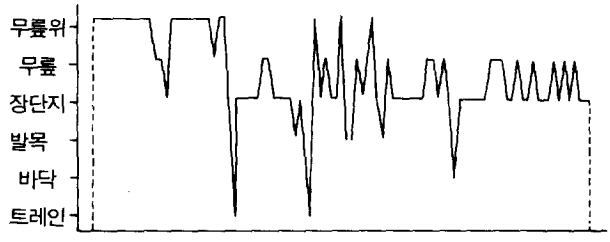
조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양식이 탄생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기성이 어느정도 유지되나 70년대나 80년대에는 더욱 가속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복식 양식의 변화에 촛점을 맞추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사건과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적 변화란 제도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란 사회구조(나이, 성 역할, 가족, 계층, 종교, 교육, 경제, 교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하며 정치적 변화란 정치체제의 변화나 군사적 갈등을 포함한다. 보통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사건은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써 설명되나 늘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함께 하지는 않으며 이는 또한 정치적 변화가 제도적 변화를 수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서양복식의 수용과 더불어 복식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갑오경장이란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단발령, 구미식 군복, 문관 복장의 개혁, 1907년 중추원 회의에서 남녀 의복 제도 개선안이 가결된 이듬해 설립된 女子禮服擬正會(이옥경, 황례, 윤고려가 중심인물)에서는 여성의 양장 예복에 대한 공모를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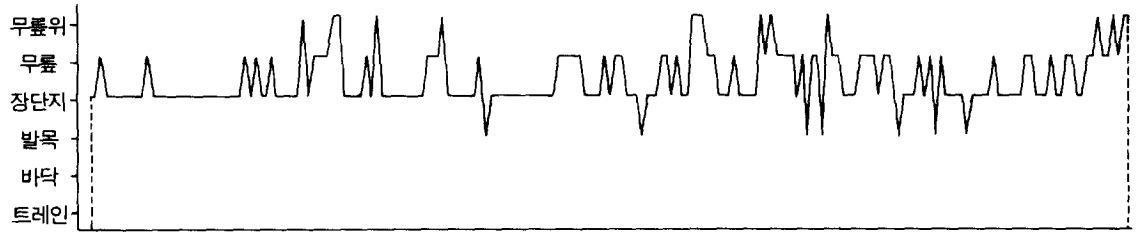
제도적 변화 중 교육의 보급은 복식 양식의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진명여고, 숙명여고 등의 서양식 교복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림 10〕 1960년에서 1969년까지 스커트길이에 대한 Time Series



〔그림 11〕 1970년에서 1979년까지 스커트길이에 대한 Time Series



〔그림 12〕 1980년에서 1989년까지 스커트길이에 대한 Time Series

신여성(김활란, 윤고려등)의 외국 유학에 따른 서양 패션의 도입이 그 예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윤심덕은 당대에 유행하였던 H실루엣의 보이쉬 스타일을 그대로 입고 있다.

1898년 10월 만민공동회 개최와 더불어 구관습의 폐지와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시위 운동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이미 부녀자들이 가담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운동이 진행되었었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장옷이나 쓰개치마의 폐기, 짧은 한복 치마를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신분에 따른 의복의 차이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9]의 스커트 길이에 대한 Time Series를 보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와 40년대, 50년대는 서양 패션에 대한 사진 자료가 극히 미비하여 스커트길이에 대한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으나 대체로 장단지와 무릎을 덮는 샤넬라인에 머물고 있다. 서양에서는 20년대는 대체로 스커트길이가 짧아져 무릎 밑선이나 우리나라에 소개된 보이쉬 스타일은 장단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리 노출에 대한 우리나라 여성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5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변혁기로 50년대 초반은 6·25동란으로 패션에 신경을 쓸 여유없이 전쟁복구 기간 동안 구호품과 유출 군수품으로 최소한을 충족시키는 시기였다. 그러나 5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패션 쇼와 여성잡지, 「여성계」와 「여원」의 창간으로 새로운 복식 문화가 정착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커트 길이는 무릎이나 장단지에 머물렀다.

1960년대는 4·19혁명, 5·16군사혁명,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공화국 탄생, 6·3사태, 국군 파월, 1968년 가정의례준칙 결의등 정치적 변혁기였다.[그림 10]에서와 같이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도 바닥에서 무릎위의 미니 스커트 길이로 그 변화의 진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6년) 공포와 더불어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 것은 경제적 변인이 스커트 길이의 변화에 있어 설명력있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물론 가수 윤복희의 귀국과 함께 미니 스커트가 유행되었다는 說도 있다.

70년대는 60년대보다 더욱 스커트길이에서 그 변화의 양상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닥의 길이인 맥시에서 무릎 위 길이인 미니였으며 그 변화의 주기도 매우 짧았다.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유신헌법 공포, 긴급 조치 1, 2호 선포, 7대, 8대, 9대 대통령 선거, 10·26 사태로 혼돈기였다.[그림 11]

70년대 후반기에서 80년대 전반기는 비교적 장단지에서 무릎선을 유지하나 80년대 후반기는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대 대통령 선거와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고생 교복 자율화 실시, 제6공화국 탄생을 들 수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의 서양 패션의 도입이래 복식 양식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내재적 자율성인 주기론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화 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복식의 양식은 하나의 정점에서 하나의 정점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었다. 즉 이는 하나의 양식에서 또 다른 양식으로 변화하여 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 양식의 주기론에서 제시하였듯이, 가치 규범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고전적 양식에서 타락된 바로크적 양식으로의 내재적 자율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패션 자체의 속성인 변화하고자 하는 특징으로 한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미디에서 미니, 혹은 미니에서 맥시의 변화를 지칭하며 튜블러에서 벨, 벨에서 아우어 글래스, 아우어 글래스에서 벨 실루엣의 전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Kroeber나 Young이 제시하였듯이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스타일이 반복된 주기는 본 연구의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20세기 전반기는 좀 더 완만한 변화를 보이나 70년대와 80년대는 5-6년의 짧은 진폭으로 변화를 이루었다. 이는 타이완과 미국의 패션의 주기를 연구한 Balkwell과 Ho의 연구자료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외부적인 힘에 의한 복식 양식의 변화는 본 연구에서 어느정도 지지되고 있다. 갑오경장이란 제도적 변혁은 서양복식의 양식을 수용함으로써 한국복식 양식의 이중 구조를 초래하였고, 60년대와 70년대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은 복식 양식 변화의 속도를 촉진시킨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더욱 GNP나 소

비지출 등의 경제적 변수와 연관지어 이의 타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는 뚜렷한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1910년 한일 합방과 더불어 한복 착용 선호가 강해졌으나 이는 정치적 변화보다는 이념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5·16군사혁명 이후 재전복 착용도 이념적 측면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1894년 갑오경장을 愼鏞廈는 1894년 농민혁명 운동으로 개면화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양반 지배체제라는 구체제의 근본적 붕괴를 농민 혁명군이 수행하였고 개화파로 하여금 개혁정책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주입하였기 때문이다.
신용하, 「한국 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p. 33
2) 韓國史大系 제7권, p. 87－8
3) 高宗實錄, 32卷, 고종 31年 10月
4) 김진식, 한국 양복 100년사,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편, 서울·미리내, 1990, p. 66
5) 독립신문, 1896. 5. 16, 잡보란
6) 高宗實錄 卷33, 고종32年 4月, 8月
7) 高宗時代史, 광무3年 8月 3日
8) 官報, 광무4年 4月 17日字 勅令
9)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서울：일지사, 1990, p. 29
10)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II,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29
11) 독립신문, 1896. 9. 10. 광고란
12) 제일은행 한국지점 출장소 개업이후 영업상황, 유수경(1990), p. 90에서 재인용
13) 村上勝彦, 大日本外國貿易年表, 植民地편, p. 16－17
14) 김진식, 앞책, p. 71, 73
15) 韓國百年 1876－1975, 동아일보사 편, 1978, p. 1063
16) 박경자, "학생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1892, pp. 460－461
17) 민숙현, 박해경, 한가람 봄바람에 梨花100年 野史, 서울：지인사, 1981, p. 155
18) 萬歲報, 1906. 11. 23.
19) 한국백년 1876－1875, p. 1065
20) 배화여자중고등학교 편, 培花六十年史, 서울：배화여자고등학교, 1958, p. 139
21) 新女性, 1926. 7, p. 23, 동아일보, 1924. 3. 4., 조선일보, 1932. 1. 20
22) 박경자, "일제시대의 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1982, p. 437, 443, 445, 453
23) 한국백년 1876－1975, p. 1064
24) 기업은행조사부,한국중소기업의 업종별 분석, 제3권, 서울：기은조사부, 1966, p. 129
25) 김진식, 앞책, p. 103－104, 87－99
26) 유수경, 앞책, p. 205
27) 조선일보, 1938. 5. 3
28) 김진식, 앞책, p. 107
29) 조영구 편, 京城紡織五十年, 서울：경성방직주식회사, 1969, pp. 60－63
30) 김진식, 앞책, p. 113, 116
31) 한국백년, 1876－1975, p. 1070
32) 박경자, "학생복식", pp. 463－464
33)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1982, p. 478
34) 김진식, 앞책, p. 150－2.
35) 김의준 편, 한국메리야스공업총람, 서울：대한 메리야스공업 협동조합회, 1966.
36) 이경자, 앞책, p. 477－488.
37) 최경자, 패션 50년, 의상사, 1981, p. 73－199.
38) Acerman, J., A theory of style, in Beardsly, M. Ed., Aesthetic Inquiry：Essays on Art Criticism and the Philosophy of Art, California： Dickenson 1967, p. 54.
39) 홍승기, 미술사에 있어서 양식개념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1984, p. 32－3
40) Kubler, G., The Shape of Time： Remarks on the History of Things, Michigan： Yale University Press, 1962.
41) Brodsky, J., Continuing and Discontinuing in Style： Problem in Art Historical Methodolog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9**(1), 1980, pp. 27－37.
42) Kroeber, A. L., On the Principle of Order in Civilization as Examplified by Changes of Fashion, *American Anthropologist*, **21**, 1919, p. 235－263.
43) Richardson, J. and A. L. Kroeber,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 A Quantitative Analysis, in Gordon, W., ed.,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3, p. 47－106.

44) Young, A., Recurring cycles of Fashion, in Gordon, W., ed., op. cit., p. 107－124

45) Belleau, B., Cyclical Fashion Movement : Women's Day Dresses, 1860－1980,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1987, p. 15－20

46) Lowe, J. and E. Lowe, Cultural Pattern and Process : A Study of Stylistic Changes in Women's Dress, *American Anthropologist*, **84**(3), 1982, p. 521－544.

47) Nystrom, P. H., Economics of Fashions, New York : The Ronald Press, 1928.

48) Nugent, E. R., The Relation of Fashion in Women's Dress to Selected Aspects of Social Chabge from 1850 to 1950,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na State University, 1962

49) Bush, G. & P. London, On the Disappearance of Knickers : Hypotheses for Functional Analyses of Psychology of Clothing, quoted in Roach, M. E., & J. Eicher, ed.,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N.Y. : John Wiley and Sons, 1965, p. 64－72.

50) Smith, T. S., Aestheticism and Social Structure : Style and Social Network in the Dandy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1974, p. 725－743.

51) Robenstine, C. & E. Kelly, Relating Fashion Change to Social Change : A Methodological Approach, *Home Economics Reseach Journal*, **10**(1), 1981

52) Behling, D.,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cs : A Model, *Clothing and Textilies Research Journal*, **4**)1), 1985.

53) Hall, L., Fashion and Style in the Twenties : The Change, Historian, 34, 1972, p. 485－497, quoted in Lynn, Richards, The Rise and Fall of Its All,*Clothing and Textil Research Journal*, **2**, 1983－1984.

54) Balkwell, C. and S. H. Ho, A quantitative Analysis of Dress Dimensions : Comparison of Models for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from 1966 to 1986,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1992, p. 47－53.